

〈창비시선〉 200권 기념시선집 나와

1970년대 이후 발표된 88명 시인의 시 한곳에 모아

〈창비시선〉이 200권을 돌파했다. 1975년 신경림 시인의 시집 《농무》가 출간된 지 25년만이다. 〈창비시선〉은 국내 최초의 신작시집 시리즈다. 1978년부터 간행된 문학과지성사의 〈문지시선〉과 함께 〈창비시선〉은 시집 출판의 대중화를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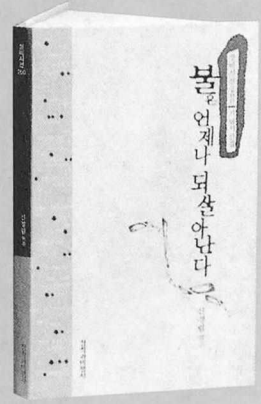
창작과비평사가 이번에 200권 돌파를 기념하는 취지로 펴낸 시선집 《불은 언제나 되살아난다》(신경림 엮음)는 그래서 의미가 깊다. 이 시선집엔 그동안 〈창비시선〉을 장식해온 시인들과 비록 〈창비시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활발히 시를 창작해온 이들을 포함해 총 88명 시인의 시 한편씩을 실었다. 197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 시문학의 빼어난 작품들을 골고루 만나면서 그 살아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고은 · 이성부 · 황동규 · 김준태 · 김명수 · 오규원 · 이성복 · 박라연 · 장석남 · 나희덕 · 박형준 · 정복여 등이 그 면면들이다.

그동안 〈창비시선〉은 시가 어떻게 사회를 반영하고 '민중' 과 더불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꾸준히 보여줬다.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한 게 있는 것 같다 / 한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 都市에서 십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 /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김준태, 〈참깨를 털면서〉)에서 보듯, 진솔한 삶의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통해 80년대 '민중문학'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신경림씨는 〈창비시선〉이 급변하는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비시선〉 200권을 돌아보면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시가 달라져야 할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치열한 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대중과의 영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강성민 기자



동화와 과학상식 접목시킨 〈리틀 스코프〉 시리즈 출간돼

독자 연령과 수준 맞춰 다채롭게 꾸며



동화와 생활과학 상식이 함께 어우러진 〈리틀 스코프〉 시리즈가 유명 미디어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갖

이기 시작한 아이들과 초등학교 1~2학년용 독서대상으로 하는 이 시리즈는 〈스코프 스쿨〉 1단계로 나왔다.

〈스코프 스쿨〉은 주제별 동화와 과학 이야기를 접목시킨 어린이 생활과학 시리즈로, 어린이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3단계로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동화와 과학 상식의 비중을 1단계인 〈리틀 스코프〉는 7대3, 2단계인 〈슈퍼 스코프〉는 5대5, 〈메가 스코프〉는 3대7로 각각 구성해,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번에 나온 〈리틀 스코프〉 시리즈는 모두 8권. 우선 주제와 관련된 동화를 읽고, 자연스럽게 과학 상식을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

룡은 무엇으로 자랄까》(디디에 레비 글, 코랄리 갈리부르 그림, 권명희 옮김)는 자라지 않는 공룡 귀스가 부모의 사랑과 뽀뽀로 부쩍 크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공룡의 특성과 생태를 설명했다. 《호기심 많은 꼬마 들쥐》(나탈리 짐머만 글, 델핀 르농 그림, 김주열 옮김)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땅굴 밖으로 나간 꼬마 들쥐 에드가의 이야기를 읽고, 겨울의 특성과 겨울잠을 자는 생물을 소개했다. 그밖에 늑대의 삶 · 카니발 · 날씨 · 세계의 어린이들 · 색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풍부한 사진 자료와 그림을 실었다는 점. 각 면마다 총천연색 사진과 그림을 통해 과학상식을 설명했다. 그밖에 숨은 그림 찾기와 퀴즈 등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놀이와 실험, 동시 등을 실어 다채롭게 꾸몄다.

이 시리즈의 발간을 기획한 김은혜씨는 “〈리틀 스코프〉는 막 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 정보를 흥미롭고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리즈”라며, “번역과정에서 유럽식 명칭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우리 현실에 맞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슈퍼 스코프〉 시리즈와 〈메가 스코프〉 시리즈는 올해 말 출간될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